상설전시관 건립과제

96년 제1차 이사회에서

생약협회 96년 제1차 이사회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중앙회 이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 협회 활동 사항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96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생약협회가 96년 한해 동안 전개해 나갈 우리 생약 살리기운동의 줄기는 △생약상설전시관 건립 추진 △청정 생약재 주말농장 개설 △생약재를 이용한 차·음료 개발에 관한 연구 △제3회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 개최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또 국내생약 농업 육성 차원에서 △전략 수출품목 및 수입대체 품목 개발 △계약재배 및 계획생산 유도 △국내 생약재 전시포 설치도 올 한해 사업과제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소비자회원들을 위한 자생약초 서식지 견학및 채집 행사를 구상중이며 산하 회원들의 상호단결과 학술세미나를 겸한 제2회 하계수련대회가 올해도 개최된다. 그밖에 △생약 학술에 관한 도서등의 출판 △중앙공판장(국산한약재상설매장)의 활성화 △지월특작묵사업지원자금(생약부문) 활용강화 △생약가격 안정기금 조정 및 유통개선 등 다양하다.

이사회에서 통과된 96년 한해 예산안은 총 4억8천3백12만원.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사업계획 및 96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는 29일 열릴 제27차 정기총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된다.

◇지난 27일 열린 이사회 장면.

의수협 정기총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29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예산안 19억1천5백만원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결산액 대비 4.6% 증가한 것이다.

이사회 이모저모

지황수매 매듭 못져 찜찜

○…이날 회의에서 중앙이사들은 95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95년 협회 사업중 우리생약살리기의 큰 줄기라 할 수 있는 지황종근개량사업이 실수요자인 약공록의 소극적 태도로 국내산지황 수매문제를 매듭짓지 못한채 난항을 겪고 있어 찜찜한 기분. 더구나 지난해 수해영향으로 수확량이 예상보다 상당량 감소함에 따라 종근대 미회수금이 약 7천2백만원에 달하는 등 협회는 적지않은 부담감을 안고 96년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상설매장, 성공적

○…재래식 중앙공판장을 편의점식 매장으로 바꾸고 소포장판매에 들어간 「국산한약재상설매장」의 개설은 지난해 생약협회가 추진한 사업중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만한 케이스. 이날 모인 이사들은 국산한약재상설매장이 소비자들에게 상시적으로 국산한약재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서 국산약재의 시장점유율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규격화사업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이었다고 분석.

집행부에 박수

○…『여러가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긴축재정으로 협회살림을 꾸려가면서 우리생약살리기 사업 전개를 위해 고군분투한 집행부에 격려와 찬사의 뜻에서 일동 박수를 보내도록 할 시다』. 96년 세출·세입 예산안 결정과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된 후 이문섭이사의 제안으로, 집행부에 성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는 등 상호신뢰와 배려가 넉넉히 묻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초도이사회는 막을 내렸다.

남부지방 가뭄 극심

생약농사 관수대책 세워둬야

남부지방의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올 봄에도 큰 비를 기대하기 힘들어 봄철 생활 및 농업용 수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상청은 최근 「봄철(3~5월) 기상전망」을 통해 『올 봄에는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조금 적겠고 지역차도 크겠다』며 『가뭄해소를 위해서는 한꺼번에 2백~3백㎜의 비가 내려야 하는데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기간동안 평년 강수량 △3월 45~80㎜ △4월 74~1백53㎜ △5월 72~1백49㎜보다 비가 적게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4, 5월에는 확사현상도 세차례 정도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생약재배 농가들은 이같은 가뭄에 대비해 철저한 관수대책을 미리 세워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관을 개정, 한약재의 수입통가에 따른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한약분과위원회」를 숙원사업인 「회관건립」을 적극 추진키 위해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제7조에 새로 규정했다.

인사

「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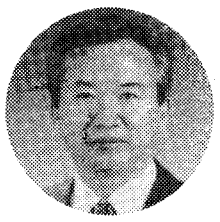
▲최민남 경기오산시 사무소장(공판장장겸직) 96년 2월 1일부 ▲이광우 대전광역시 서구 공판장장 96년 2월 4일부 ▲이계순 경기일산시 공판장장 96년 2월 12일부

내방

△배명철 고문 △정형모 부회장 △박재문 이사 △김종은 이사 △이문섭 이사 △합영완 이사 △김용한 이사 △이지대 충북지부장 △권순직 부산광역시 지부장 △김성배 경기 지부장 △이영갑 경남 지부장 △최윤식 경기 용인군 사무소장 △이웅황 경기 안성군 사무소장 △우대기 강원 태백시 공판장장 △이한승 충북 제천군 사무소장 △이인기 경기 포천군 사무소장

동정

간담회 개최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은 3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과천 제2종합청사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원예특작관련 단체 및 협의회 대표와의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96년 농림수산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 현장애로사항 건의 및 토의가 이뤄질 예정.

기술정보

◆시호의 제주지역 파종기는 3월 10일경이 알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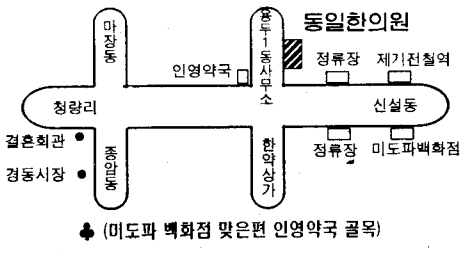
3월10일 파종하면 재배토양이 화산회토인 경우 말린 뿌리가 10a에 51㎏이 생산돼 2월하순의 45㎏, 3월중·하순의 57㎏에 비해 4~6㎏이 증수되며 일반토양에서는 생산량이 47㎏으로 다른 시기 보다 2~5㎏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농진원)

◆농기계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농기계 운영 규모가 조사됐다.

농기계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위탁했을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기준으로 했을때 경운기는 2.7ha, 트랙터는 11.4ha, 이양기는 3.52ha, 콤바인은 8.13ha정도의 면적에 농기계를 사용해야 적자를 면할수 있는 운영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일한의원 이전안내

동일한의원은
은행입주관계로 미도파백화점
(제기 전철역) 맞은편 용두1동 사무소
입구로 이전하였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 90-2
동일한의원장 신풍호
☎964-5684~5, 969~0036~7